

문둥이와 걸버생이의 사랑

권정생 지음 《한티재 하늘(1·2)》을 읽고

윤구병 · 농부

땀나뭇을 하러 간다 해놓고 하루종일 방 안에 죽치고 앉아 《한티재 하늘》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스무해 전에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읽었을 때도 감동을 느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권정생 선생은 '들머리에'(아마 다른 작가들이었다면 이 말 대신에 '서문'이나 '프롤로그' 같은 말을 썼겠지요) 이렇게 썼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내용을 압축한 것 이어서, 그리고 제가 본 어떤 머리말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여기 그대로 옮깁니다.

서럽고 고달팠던 우리네 이야기

"20년 전 어느날, 버스를 타고 나는 청송 칠배골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동읍내 양반댁 종년이었던 달옥이 아지매와 한밤중에 도망쳐 가서 살았던 이석이 아저씨네는 이제 거기 살지 않았습니다.

귀들이 아지매가 열한살 나이로 만머느리를 가서 살다가, 동생 분옥이가 보고 싶어 몰래 흥시감 네 개를 들고 할딱거리며 넘어 오던 시구지미 고갯길은 고속도로로 꺾여나가 버렸습니다. 이순이 아지매가 남편이 일본 노무자로 끌려간 뒤 밀주를 담가 팔아 근근이 살다 들켜, 벌금 50원 때문에

외 팔이 등 짐 장수와 하룻밤 지냈던 솔티 꼭지네 주막도 어디쯤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길수 아저씨가 반란군(의병)으로 나갔다가 죽어 문헌 일일산에도, 수동댁 할머니가 병어리 머느리 채숙이 아지매와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손자 종대와 함께 가서 살았던 울진 바닷가에도, 분옥이 아지매가 문둥병 때문에 소박테기가 되어 각설이 동준이 아저씨와 가서 살았던 영양 다래골 골짜기에

도, 분들네 할머니의 두릅골에도, 지금은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등을 돌린 채 혼잣말처럼 조용 조용, 산에 가면

산나물을 뜯으면서, 인동꽃을 따면서, 밭에 가면 글조밭을 매면서, 집에서는 물레실을 자으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서럽고 고달팠던 우리네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투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옮겨 적었습니다."

이 짧은 머리말 속에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상머리에 앉아 저만치 건너서 보거나 머리를 종그려 꾸며댄 민중의 삶과 역사가 아니라 평생을 병고 속에서 무지렁이로 살아온 60 넘은 시골 노인네가 온

몸으로 적어 내려간 '우리네 백성들'의 역사이자 '우리네' 이야기를 글로

옮겨 들려주는 빼어난 '우리' 문학입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이른

바 '민중문학'의 참모습을 《한티재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갈피갈피 어느 하나 애달프지 않은 사연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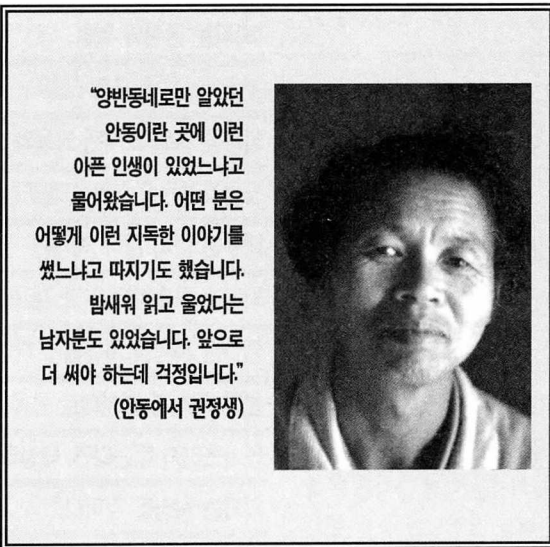
되, 그 애달픔이 빗어 내는 눈물겨움이

가슴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음

의 굶주림을 채워 주었습니다.

권정생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로 보이는

사람은 문둥병 걸린 소박테기 분옥이를 10년도 넘게 돌보다가 스스로 문둥이가 되어버린 '걸버생이(겨렁뱅이)' 동준이입니다. 동준이는 그냥 동양아치가 아닙니



"양반 동네로만 알았던 안동이란 곳에 이런 아픈 인생이 있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이런 지독한 이야기를 썼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밤새워 읽고 울었다는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써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안동에서 권정생)



다. 그이가 부르는 장타령이나 피리소리를 들은 사람이면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빼어난 민중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글로 드러난 동준이의 예술혼이자 사

랑입니다.

언뜻 들추어보면 이 책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그저 즐기리만 세워 짜임새 있게 엮어놓은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동준이의 분옥에 대한 사랑 같은 아찔하도록 아름다운 일화를 섞어서 '우리네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신산고통을 간결하고 아름다운 토박이 말투로 담백하게 그려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꼼꼼하게 눈여겨보면 두 갈래 큰 물줄기가 때로는 갈라지고 때로는 합수되면서 아래로 흐를수록 넓어지고 깊이를 더하는 치열한 작가의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사람이 곧 한울님'이라는 동학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 사람을 하늘로 보지 않는, 낡고 병든 세상을 건강한 새 세상으로 바꾸려는 염원에 따라 싸우다 죽어 가는 빨간구이(반란군-혁명가)들의 대물림으로 드러나는 '남정네' 세계입니다. 수천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러나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소망은 '한티재 하늘' 아래에서도 문노인에서 아들 길수, 손자 서억이를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깊어갑니다. 또 하나는 온전하지 못한 이도 사람대접을 하고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어린 것도 제 피붙이로 여겨 살 길을 열어주는, 밝히고 또 밝히면서도 억척스레 되살아나 이 땅에 푸르름을 더하는 절경이 같은 생명력을 지닌 '할매'와 '아지매'들의 세계입니다. 병어리를 머느리로 맞고 친손자가 아닌데도 그 머느리가 낳은 아이를 친대받지 않게 하려고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새 삶을 개척하는 수동댁 할매

에서,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이' 하면서 피땀 흘려 일하여 살 만하다 싶으면 남편이 도박으로, 자연이 홍수로 집안꼴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그때마다 다시 빈손으로 맨 밑바닥에 나뒹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남으려는 손녀딸 이순으로 이어지는 치열하지만 넉넉한 삶의 의지가 이 물줄기를 끌어잡니다.

온몸으로 껴안은 사랑

《한티재 하늘》은 23장까지로만 마무리되었더라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권정생 선생은 들쭉날쭉 마지막에 덧붙인 24장을 통해서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에 뒤이어 스스로 겪은 우리네 백성들의 삶을 증언하는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한 성스러운 이가 잘못된 세상의 전형인 제국주의 나라 심장부의 뒷골목에서 외팔이 장돌뱅이의 씨앗을 받아 이순이의 배속에서 태어나(상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씨인지도 모를 애를 가졌기에 제 땅에서 뿌리 뽑혀 떠돌다가 남의 집 마구간에서 몸을 푼 성모 마리아와 이순이 아지매는 같은 사람입니다) 피지배 민족의 온갖 설움을 안고 어릴 적부터 '오물덩이에 뒹굴면서' 자라나 반세기가 넘는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이야기의 들머리에 서서 저는 앞으로 전개될 권정생의 삶의 자취가 우리네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비렁뱅이 권정생과 걸버생이 동준이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살로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외롭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문둥이 분옥이는 우리네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이 소박테기 우리네 백성을 비렁뱅이 권정생은 온몸으로 껴안습니다. 문둥이 백성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문둥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끌림입니다.

저는 권정생 선생이 《한티재 하늘》을 마무리지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밝힐 수 있게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고 지금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동해안 어느 산언덕에 문혀 있을 수동댁 할매에게 씁니다. ❖

지식산업사/A5신/각 290면 내외/각 7500원